

# 독서 행위를 통해 살펴본 20-30대 남성의 다양성과 그 함의

박정오\*

## | 목차 |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 1) 젠더와 독서 행위
  - 2) 20-30대 남성의 다양성
3. 이론적 자원
  - 1) 독서 행위
  - 2) 남성성
  - 3) 마이너리티 정체성
4.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2) 연구 방법
  - 3) 분석틀
5. 연구 결과
  - 1) 유형 분석
  - 2) 유형화의 함의
6. 결론

## | 초록 |

본 연구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 이외에 다른 남성성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에도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이유를 살펴보고자 진행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와 남성성이다. 독서 행위는 면접 참가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책을 읽는지 살펴봄에 분석했고, 남성성은 젠더 의제에 대한 인식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통해 분석했는데, 이때 젠더 의제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전통적 남성성 및 강한 남성성에

\* 부산대학교 hillitoot@naver.com

대한 인식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는 20-30대 남성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어떤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이러한 독서 행위의 특성은 면접 참가자들이 젠더 의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와 연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면접 참가자들을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절충적 남성성’으로 유형화했다. 셋째,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이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는 특정 분야의 생계 활동 혹은 성소수자 정체성과 연관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20-30대 남성이 인문 서적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우며, 젠더 의제를 우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남성성, 독서 행위, 20-30대 남성, 다양성

##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 이외에 다른 남성성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에도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이유를 분석하고자 진행했다. 20대 남성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의 유권자로 분류되었지만(진시원, 2022: 39), 2018년 문재인 정부에 강한 지지를 보내던 20대 남성 집단에서 국정 지지율이 크게 감소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후 발간된 정책 보고서에는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의 여성친화적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으며,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기반해 외국인 노동자, 난민, 북한 문제 등에 적대적이라 분석하고 있다(최성용, 2019:

93-94).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20대 남성에게로 집중되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한쪽은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 여러 특성을 지적하는 연구이다. 20대 남성은 기회가 점점 축소되는 저성장의 국면에서 공정이 무너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쟁이 아닌 권력의 팔 비틀기를 통해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분석(천관울·정한울, 2019: 79), 청년 남성은 학벌·성별 임금 격차를 공정으로 인식하며, 부자일수록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생각이 없다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 등이다(KBS·한국리서치, 2021). 또한 20대 남성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로지 무언가에 반대하는 집단이라거나(최성용, 2019: 111), 이들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정체성을 가지며 남성 집단 내에서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분석(허성학, 2020: 268) 등이 있다. 반면 다른 한쪽은 20대 남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20-30대 남성은 전통적 남성성과 거리가 멀고 ‘여성적’ 역할과 기질이라 인식되는 가사분담, 요리, 정서적 관계 형성 등에서 40-50대 남성에 비해 수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마경희 외, 2018: 62), 다른 세대 남성과 비교했을 때 20대 남성의 성평등의식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며, 젠더 의식 차이는 20대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최종숙, 2020: 208). 또한 청년 남성의 젠더 관계 인식이 다양하며 일부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성의 참여 확대에 긍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추지현, 2021: 188).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의 특성은 비록 일부일지라도 이를 가능하게 만든 사회적 조건과 맥락, 관련 사회 이슈 등에 대해 살펴보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건 필요한 행위이지만, ‘한국의 20대 남자’를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가두거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단순화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즉 20대

남성이 문제시되는 집단으로 이미지가 공고화되면서 반페미니즘, 보수화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집단의 특성과 정체성이 20대 남성 전체를 대표하고 특정한 이미지로 공고화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20대 남성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는 현존하는 젠더 갈등의 논점을 흐리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은 남성’도 존재한다는 논의는 결국 여성혐오 범죄를 일부 남성의 일탈로 인식하는 방어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를 절충하여,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모습과는 다른 20대 남성의 가능성을 살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고,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의 특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던 2018년 이후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20-30대 남성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의 이미지 외 다양한 모습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문화 취향 및 문화 소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매체의 종류가 많아지고 문화 소비 방식이 다양해진 최근에는, 문화 취향과 문화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체성도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고명지, 2020; 김주원·오세이·오경아, 2022). 본 연구는 20-30대 남성이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습득하는지, 문화 취향 및 문화 소비가 이들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20-30대 남성이 어떤 문화 취향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게임, 운동, 스포츠 등을 분석하는 게 유용하겠지만, 이는 현재 20-30대 남성의 특성을 설명하며 기존에 형성된 사회적 이미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뿐, 이들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남성이 많은 관심을 보이거나 이미 활발하게 향유

하고 있는 문화 취향을 분석하기보다, 이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문화 취향 혹은 문화 소비 행위를 탐색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에 주목했다. 성인 독서율이 감소하고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독서 행위는 더 이상 보편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독서 인구 중 20-3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지만(통계청, 2021), 독서 행위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논의(천경록, 2014; 김경민, 2019; 김미혜, 2022)는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과 대조적이기에, 독서 행위 분석을 통해 새로운 20-30대 남성의 모습을 제시하려 했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남성이 독서 행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주목했다기보다, 20-30대 남성의 다양한 모습을 탐색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하여 독서 행위를 선택했다.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서는 자신의 경험과 정체성, 신념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교류하며 새로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이며(최숙기, 2018: 169-170), 개인은 이러한 독서 행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다(천경록, 2014: 9). 또한 독서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타인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며(김경민, 2019: 102), 다문화 감수성, 비판적 문식성, 공감 능력 등과 연관이 있다(김미혜, 2022: 22). 다만 이러한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독서 행위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개인을 특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만 현실에서 개인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양한 목적으로 읽는다. 또한 문화 취향 및 문화 소비의 관점에서 개인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 및 가치관에 맞는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즉 독서 행위와 개인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상관관계를 가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실제로 개인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독서 행위 전반이 아닌, 어떤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독서의 기능 및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20-30대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며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때 본 연구는 20-30대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가 주로 젠더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체성 중에서도 젠더 정체성, 즉 남성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남성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남성성이 존재함에도 20-30대 남성 내에서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의 특성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지배적인 이유를 분석하며 유형화의 함의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책 읽는 20-30대 남성은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모습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가? 이를 통해 20-30대의 다양한 남성성을 살펴볼 수 있는가? 다양한 남성성은 각각 어떤 특성을 보이며,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발현되는가?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에도 왜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이 여전히 지배적인가?

## 2. 선행연구

### 1) 젠더와 독서 행위

최숙기(2018)는 독서를 젠더화된 행위로 바라보며 문식성 행위, 즉 텍스트 읽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여자로서 살

아가는 과정과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은 소설 『82년생 김지영』 읽기를 통해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에 대한 반응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 남성 독자들은 부정적 읽기 태도를 보였던 반면 여성 독자들은 동일한 책에 대해 긍정적 읽기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일부 남성 독자는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를 통해 페미니즘을 새롭게 인식하고, 남성 중심 사회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며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했다(최숙기, 2018: 193-194). 한편 김세화·최숙기(2020)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 분석, 요약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독자가 페미니즘 텍스트를 읽으면서 어떤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구 결과 남성 독자 집단은 페미니즘 텍스트에 대한 저항 및 의혹의 의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여성 독자 집단은 기존에 형성된 젠더 담론을 중심으로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한다(김세화·최숙기, 2020: 54-55).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독자가 같은 텍스트를 읽더라도 자신의 젠더 인식과 관념을 기준으로 다르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며 젠더와 독서 행위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젠더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동일한 젠더 내에서도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페미니즘 텍스트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독서 행위 전체를 아우르기보다 특정 장르의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성별 내 차이를 충분히 조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독서 행위를 젠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닌 남성 내 차이에 주목하고, 페미니즘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독서 행위 전반에 대해 분석하며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20-30대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려 한다.

## 2) 20-30대 남성의 다양성

본 연구는 책 읽는 20-30대 남성이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20-30대 남성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경희 외(2018)는 한국 남성성의 유형을 전통적 남성성, 과도기 남성성, 비전통적 남성성으로 나누며 20-30대 남성은 비전통적 남성성, 과도기적 남성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남성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엘리(2019)는 일부 20-30대 남성들이 근대 남성성을 비롯한 기존의 사회규범에 비판적이면서도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이브리드 남성성을 수행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추지현(2021) 역시 청년 남성들의 젠더 관계 인식을 ‘평등 당위수용’, ‘보수’, ‘변혁 지향’, ‘같은 지향으로 유형화하며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일부 보수 집단을 제외하고는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성들의 참여 확대에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현실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이들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은 20-30대 남성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고정되고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 아닌 다양성을 가진 집단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이들의 특성을 도출하여 분류화 및 유형화하는 경향이 있고, 다양한 남성이 존재한다는 논의는 젠더 갈등의 본질을 흐리는 위험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책 읽는 20-30대 남성을 페미니즘 이외에도 능력주의, 다양성 등을 통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남성의 모습을 탐색한다. 또한 젠더 갈등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자 다양한 남성이 존재함에도 왜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이 여전히 지배적인지 분석하려 한다.

### 3. 이론적 자원

#### 1) 독서 행위

본 연구는 독서 행위를 독자에 초점을 맞춰 접근한다. 독자는 읽기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며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이때 독자는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한위성, 2017: 279-280). 이러한 접근은 저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담론과 구별되며 독자의 이해와 해석에 초점을 맞춘 독자반응이론(Reader Response Theory) 개념과 연결되는데(Cahill, 1996; 성수진, 2022: 287에서 재인용), 이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정체성, 신념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교류하며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며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최숙기, 2018: 169-170). 본 연구는 텍스트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저자의 관점이 아닌 독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개인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또한 특정 장르의 텍스트가 성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으며, 남성 독자 내에서도 다양한 응답을 보여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최숙기, 2018; 김세화·최숙기, 2020), 독서 장르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 즉 본 연구는 독서 행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독서 목적과 독서 장르에 주목한다.

한편 독자는 독서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며 사회적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천경록, 2014: 9),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타인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며 ‘공감’을 경험할 수 있다(김경민, 2019: 102). 독서는 교육의 관점에서 그 역할이 많이 강조되어 왔는데, 다문화 사회에서 독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 감수성, 비판적 문식성,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고(김미혜, 2022: 22), 상상력의 해방이 문식력(literacy) 교육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정

치적·경제적 문제에 대해 개인적 상상력에서 공공 상상력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김수아·이예슬, 2017: 99). 이를 통해 독서 행위는 공감 능력, 감수성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독서에 관한 이러한 논의가 현실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 보려 한다.

## 2) 남성성

본 연구는 20-30대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가 주로 젠더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체성 중에서도 젠더 정체성, 즉 남성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남성성은 여성성과 구분되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대립물로서 서로를 내재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안상수 외, 2014: 43). 코넬(Connell)은 남성성을 젠더 관계 속의 장소이자 관계적 개념으로 바라보며 이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데, ‘헤게모니적(hegemonic) 남성성’은 해당 사회의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규범을 의미하며 ‘종속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상징적으로 추방된 이들을, ‘공모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에서 이득을 얻으며 가부장적 배당금을 받는 이들을, 마지막으로 ‘주변화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권위를 부여하지만 스스로 권위를 산출하지 못하는 이들을 의미한다(Connell, 2013: 123-130).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성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데 있긴 하지만,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20-3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의 특성은 스스로를 약자로 분류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들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규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넬이 제시한 헤게모니적 남성성, 종속적 남

성성, 공모적 남성성, 주변화된 남성성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남성성을 관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20-30대 남성이 스스로를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유형화를 진행하려 했다. 즉 20-30대 남성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규범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살펴보는 한편,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모습과 비교하여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살펴보고자 젠더 의제에 관한 입장을 조사하려 했다. 이때 젠더 의제는 20-30대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준 항목 위주로 선택했다. 실제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을 단일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아닌 다양성과 혼종성을 가진 집단으로 접근하기 위해 남성을 나누고 유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유정·김민지(2022)는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이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에 대한 동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있다. 마경희 외(2018)는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동의 정도’, ‘요리·가사 역량’, ‘가사분담 정도’, ‘정서적 관계 역량’을 기준으로 남성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추지현(2021) 역시 청년 남성의 젠더 관계 인식을 파악하고자 ‘성역할규범’, ‘현행 젠더 관계평가’, ‘변화에 대한 태도(정책 지향)’를 살펴봄으로써 면접 참가자를 유형화했다. 본 연구에서는 코넬의 논의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성성 구성요소를 ‘젠더 문제 인식’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젠더 문제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전통적 남성성, 강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성성 연구는 주로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 이외의 다양한 남성성 유형을 살펴보는 데 있기에, 역사적인 맥락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 3) 마이너리티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20-30대 남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활용하여 이들의 정치경제학적 토대를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통해 살펴본다. 마이너리티 정체성은 공정과 경쟁을 중요시하고, 각자 느끼는 불합리함을 사회적 약자, 소수자 정체성으로 표출하는 20대 남성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천관율·정한울, 2019: 79; 허성학, 2020: 268).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다수라기보다 25.9%에 해당하지만(천관율·정한울, 2019: 65), 이후 진행된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를 살펴보면, 20-30대 남성 중 5.5%만이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으며(경향신문, 2022), 청년 남성은 학벌·성별 임금 격차를 공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나타났다고 이야기한다(KBS·한국리서치, 2021). 20-30대 남성의 이러한 인식은 이념 양극화와 정치적 행위로도 나타났는데, 2021년 진행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대 남성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보수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KBS·MBC·SBS, 2021; KBS·MBC·SBS, 2022), 이들의 보수적 성향과 반페미니즘 정서는 공고화되고 있으며(진시원, 2022: 40) 일부 집단의 경향이라 보기 어렵다. 즉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이미지와 가까운 이들이 여전히 다수일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20-30대 남성을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통해 살펴보는 일은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마이너리티 정체성의 핵심은 스스로를 약자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남성 위기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기득권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는 건 한국 남성의 특성이기도 하지만(엄기호, 2017: 182),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20-30대 남성 내에서 주로 관찰된다(천관율·정한울, 2019; 김원정 외, 2021; 천정환, 2016). 이들은 기성세대에 의한 착취와 여성에 의한 착취를 동시에 경험한다고 인식하는데(천관율·정한울, 2019: 130),

징병제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으면서도, 또래 여성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할당제 등 여성 우대 정책으로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으며,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도 약자의 입장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김원정 외, 2021: 40). 이는 20-30대 남성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문화는 이들의 박탈감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능력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천정환, 2016: 369-370). 즉 20-30대 남성은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든 또래 여성과의 관계에서든 공정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스스로를 약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는다면, 이들은 20-30대 남성에게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즉 남성성의 위기 속에서 특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과 혐오로 발현된다는 의미다(김수아·이예슬, 2017: 69). 또한 성인 남성은 굴욕 혹은 수치심을 느끼면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폭력적인 방식의 대응 및 혐오가 만들어진다는 논의 역시(Chodorow, 2002: 135; 이나영, 2016: 160에서 재인용),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지를 설명한다.

한편 20-30대 남성의 불안과 분노가 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향하는지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이들이 왜 불안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들이 기성세대에 의한 착취와 여성에 의한 착취를 동시에 경험한다고 인식하는(천관울·정한울, 2019: 130) 그 바탕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꼽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20-30대 남성은 동년배 여성에 비해 고용율이 높고 실업률이 적게 나타난다(통계청, 2023). 다만 최근 20년의 흐름을 살펴보면 20-30대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과 실업률 흐름은 차이가 존재한다.

〈표 1〉 2003~2023년 20-30대 고용률 및 실업률(%)

| 성별 | 연령<br>계층별 | 2003년 |     | 2013년 |     | 2023년 |     |
|----|-----------|-------|-----|-------|-----|-------|-----|
|    |           | 고용률   | 실업률 | 고용률   | 실업률 | 고용률   | 실업률 |
| 남성 | 20-29세    | 63.6  | 8.9 | 55.8  | 9.0 | 58.4  | 6.6 |
|    | 30-39세    | 92.1  | 3.1 | 90.2  | 3.2 | 88.9  | 2.5 |
| 여성 | 20-20세    | 57.4  | 6.4 | 57.8  | 6.8 | 63.4  | 5.2 |
|    | 30-39세    | 52.4  | 2.8 | 55.5  | 2.5 | 68.0  | 2.8 |

출처: 통계청,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수정.

전체적으로 20-30대 여성은 20년간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줄어든 반면, 20-30대 남성은 고용률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나타난다. 즉 20-30대 남성이 스스로를 약자로 분류하며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지는 데는, 동년배 여성과의 경쟁이 과거에 비해 더 치열해졌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큰 축에 속하며, 남녀가 각각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근무 형태가 어떤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20-30대 여성의 고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20-30대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기성세대 남성은 당시 동년배 여성과 비교했을 때 고용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현재의 20-30대 여성은 줄곧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취약성이 원인이 되어 20-30대 남성이 스스로를 약자로 분류하고, 공정과 경쟁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지점을 고려한다면, 20-30대 남성을 분석할 때 경제적 문제를 주요한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독서가 공감 능력 및 감수성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

으로 20-30대 남성의 다양성을 살펴본다는 목적이 있기에, 이들의 독서 행위가 경제적인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하려 한다.

#### 4.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독서 행위를 하는 20-30대 남성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독서의 관한 기존의 논의가 실제로 20-30대 남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면접 참가자들을 선정하였다.

〈표 2〉 면접 참가자 분류

| 분류 | 이름<br>(가명) | 연령대           | 학력 | 독서량<br>(한 달) | 직업                   | 연봉                | 주요 독서 분야<br>(현재) |
|----|------------|---------------|----|--------------|----------------------|-------------------|------------------|
| A  | 동현         | 89년생<br>(30대) | 대졸 | 3-4권         | 책방 대표                | 2500만원 내외         | 문학, 사회과학         |
| B  | 상수         | 98년생<br>(20대) | 대졸 | 1~20권        | 정책 연구원               | 2800만원 내외         | 자기계발, 실용서        |
| C  | 현우         | 95년생<br>(20대) | 대졸 | 3권           | 책방 직원<br>(팀장)        | 3000만원 내외         | 사회과학             |
| D  | 준식         | 94년생<br>(20대) | 대졸 | 2권           | 온라인<br>이커머스 사업       | 3000만원 내외         | 마케팅              |
| E  | 현규         | 91년생<br>(30대) | 고졸 | 1권           | (전) 디자이너<br>*취업 준비 중 | 2500만원 내외<br>(과거) | 사회과학, 마케팅        |
| F  | 대훈         | 93년생<br>(30대) | 대졸 | 2권           | 정신건강사회<br>복지사        | 3500만원 내외         | 심리, 인간관계, 주식     |
| G  | 태호         | 93년생<br>(30대) | 대졸 | 2권           | 무직                   | 600-900만원<br>(무직) | 심리, 자기계발         |
| H  | 강훈         | 95년생<br>(20대) | 대졸 | 4-8권         | 도서관 사서               | 2700만원 내외         | 문학               |

| 분류 | 이름<br>(가명) | 연령대           | 학력 | 독서량<br>(한 달) | 직업                           | 연봉                | 주요 독서 분야<br>(현재) |
|----|------------|---------------|----|--------------|------------------------------|-------------------|------------------|
| I  | 명주         | 95년생<br>(20대) | 대졸 | 4-8권         | (전) 선박<br>기자재 업무<br>*취업 준비 중 | 3300만원 내외<br>(과거) | 주식               |
| J  | 준호         | 94년생<br>(30대) | 석사 | 3-4권         | 생산직<br>*이직 준비 중              | 3800만원 내외         | 심리학, 사회과학        |

본 연구의 면접 참가자는 총 10명이며, 연령대와 선호 장르 등을 범주로 모집했다.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은 엘리트층 혹은 고소득층에서 드러난다는 연구도 있고(KBS · 한국리서치, 2021) 저소득층에서 주로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는데(한귀영,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대 남성이 계층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가 아닌 독서 행위를 통해 20-30대 남성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23년 6월 22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심층 면접 형태로 진행했으며, 1회당 평균 2시간씩 소요되었다. 사전 동의를 구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 내용은 문서 파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심층 면접은 참여자별로 각 1회씩 진행되었다. 면접 참가자는 20대와 30대를 각각 5명씩 나누어 모집했다. 이때 <2021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1인당 연평균 독서 권수가 8.9권, 30대 남성의 평균 독서 권수가 9.8권이라는 점을 참고해, 면접 참가자는 평균 독서 권수가 평균보다 높은 이들을 선정했다(통계청, 2021). 기준은 월평균 독서량 1권 이상으로 설정했다. 독서 장르가 특정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면접 참가자들을 모집하려 했는데, 5명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접 참가자들의 주 독서 장르는 자기계발, 마케팅, 주식 등을 포함한 '실용 서적'과, 사회과학, 문학 등을 포함한 '인문 서적'으로 나누어졌다. 이를 참고하여 나머지 5명의 인터뷰는 '실용 서적'과 '인문 서적'이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독서 장르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면접 참가자를 확보하는 데 적합한 ‘눈덩이 표집법’을 활용했다.

##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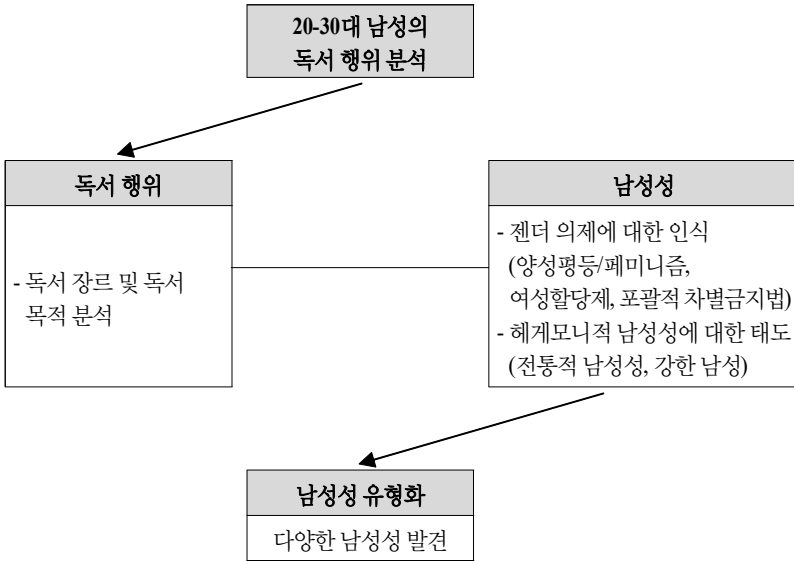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심층 면접’을 선택했다.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끌어내기 위해 심층 면접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간 1:1로 진행했다. 또한 큰 틀과 구조를 정해놓고 면접 대상자 스스로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반구조화 방법을 활용했다. 사전 질문지가 있었지만 상황에 맞는 질문을 추가하여 면접 대상자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내려 했다.

자료 수집 이후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을 활용했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자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Charmaz, 2013: 26). 근거이론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코딩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복잡한 정보를 축소 시키며 패턴을 찾고 유형화를 하는 것이다(박미혜, 2023: 166).

근거이론의 대표적인 분석법으로는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김수연·구혜경, 2023: 92). 개방 코딩은 어떠한 이론적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도록 자료에 긴밀하게 밀착하는 과정이다(Charmaz, 2013: 110-111). 다음으로 진행한 축 코딩은 개방 코딩 단계에서 나뉘진 자료를 다시금 조직화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과정이다(Charmaz, 2013: 133). 마지막 단계인 선택 코딩은 초점 코딩이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하고 완전하게 자료를 범주화하며 분석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으로 면접과 관찰을 넘나들며 면접 참가자들의 경험, 활동, 해석을 비교할 수 있다

(Charmaz, 2013: 129-130). 본 연구는 근거이론의 규칙에 따라 이론적 포화가 발생할 때까지 사전에 특정한 개념이나 분석틀, 결론을 가정하지 않고자 자료를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비교했다. 이때 이론적 포화는 범주 간 관계가 명확해지고 근거가 충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걸 의미한다(조성진, 2013: 250-251).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1차 코딩을 개방적으로 진행했고, 62개의 개념과 29개의 하위범주, 12개의 핵심범주를 도출했다.

### 3) 분석틀



〈그림 1〉 연구 분석틀

연구 분석틀은 비어내키(Biernacki, 1986)의 연구를 참고했다(Biernacki, 1986; Glaser, 1978; Glaser & Strauss, 1967; Charmaz, 2013: 286-28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면접 참가자들의 독서 행위를 살펴봄에 독서가 다

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며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는 다른 남성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려 했다. 이를 위해 20-30대 남성이 다른 세대 및 성별과는 차이가 있는 독특한 경향을 보이는 항목인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고, 전통적 남성성 및 강한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려 했다. 이를 기반으로 발견한 남성성을 유형화 및 비교 분석했다.

## 5.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30대 남성 중 책을 읽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이미지와 다른 정체성 및 가치관을 가지는지 살펴보는 한편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다른 남성이 존재함에도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면접 참가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장르의 책을 읽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 면접 참가자들의 독서 행위와 이들의 남성성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살펴보며 다양한 남성성 유형을 탐색한다. 이들의 남성성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20-30대 남성이 다른 세대, 성별과는 다른 독특한 성향을 보인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더불어 전통적 남성성 혹은 강한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함께 살펴본다. 세 번째, 유형화가 가지는 한계와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독서 행위를 통해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남성성

| 면접 참가자         | 독서 행위   | 남성성(젠더 문제 인식,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  | 남성성 유형        |
|----------------|---|--|---------------|
| 동현, 현우, 강훈, 준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과학, 문학 등 인문서적 독서</li> <li>• 삶에 대한 해상도 증가</li> <li>•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상상</li> <li>• 겸손함 함양</li> <li>• 타인에 대한 이해</li> <li>• 세상에 대한 해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도 언젠가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li> <li>• 자신과 다른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li> <li>• 주위 사람이 행복해야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인식</li> <li>• 전통주의적 남성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li> <li>• 강한 남성에 대한 비판</li> </ul>  | 연결 지향적 남성성    |
| 상수, 대훈, 명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계발, 주식 책 등 실용서적 위주 독서</li> <li>• 개인에게 현재 필요한 걸 충족</li> <li>• 과거에 이미 정체성 및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음</li> <li>•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독서</li> <li>• 개인의 호기심 충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생각을 강요하는 것에 비판</li> <li>• 개인의 자유 중시</li> <li>•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음</li> <li>• 20-30대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li> <li>• 특정한 생각이 주입되는 걸 경계</li> <li>•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부분적 긍정</li> <li>• 강한 남성에 대한 부분적 긍정</li> </ul> |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
| 준식, 현규, 태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는 일 따라 독서 장르 및 목적 변화</li> <li>• 생각이 정리되고 사유가 넓어짐</li> <li>• 다양한 가치를 받아들임</li> <li>• 개인 지식을 축적</li> <li>• 타인을 분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미니즘은 쪼개어 볼 필요가 있음</li> <li>•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두 필요하지만 경계할 지점도 있음</li> <li>• 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젠더 문제 인식</li> <li>•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함</li> <li>•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절충적 입장</li> <li>• 강한 남성에 대한 동경</li> </ul>            | 절충적 남성성       |

동현, 현우, 강훈, 준호의 독서 행위는 타인과 사회를 향한 연결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책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도구였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신들도 언젠가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늘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에게는 독서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한다는 점에서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연결 지향적 남

성성'이라 규정했다.

상수, 대훈, 명주는 독서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장 및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책은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걸 얻기 위한 도구였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이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독서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하기보다 개인의 성장 및 변화, 지식 획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이라 규정했다.

준식, 현규, 태호의 독서 행위는 개인의 성장 및 변화와 사회연결적인 가치가 공존했다. 이들은 생계 활동에 따라 독서 행위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절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들은 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계를 하거나, 장단점을 나누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해 복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독서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 역시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절충적 남성성'이라 규정했다.

## 1) 유형 분석

### (1) 연결 지향적 남성성

#### ① 인문 서적 독서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 함양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타인 및 사회와의 연결을 목적으로 주로 사회과학 서적과 문학 위주로 읽었는데, 불평등, 페

미니즘, 다양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분석한 책을 읽으며 책 내용과 관련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렸을 적부터 줄곧 문학과 사회과학 도서를 읽어온 면접 참가자도 있었고(동현), 마찬가지로 줄곧 사회과학 도서를 읽어온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현우). 또한 과거에는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적을 읽다가 2018년 페미니즘 열풍 이후 읽을 만한 작품이 생겼다는 생각에 현재는 문학 위주로 읽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고(강훈), 성장기 시기에 문학과 철학 책을 읽다가 현재는 사회과학과 심리학 책 위주로 읽고 있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준호).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고 같이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에서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 현우

한 면접 참가자는 책을 통해 삶의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럴수록 잡티가 많이 보이게 된다고 답변했다(동현). 또한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스스로 겸손해지며 사회에서 정직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고(현우), 책을 통해 타인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타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답변(강훈), 타인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 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답변도 있었다(준호). 면접 참가자들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이해와 상상,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한편 면접 참가자들은 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동네책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동현, 현우), 작은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강훈). 한 면접 참가자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준호), 이들이 사회과학, 문학 등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는 생계활동 혹은 성적 정체성과 연관이 있었다.

## ② 젠더 의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적 의제를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현우, 강훈, 준호). 이들은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주위 사람이 행복해야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경향성과 달리 한 면접 참가자는 젠더적 의제에 부분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동현).

내 주변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더 평등할 수 있어야 나 역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준호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은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아니며 갈 길이 멀다는 답변도 있었고(현우), 마찬가지로 양성이 평등하지 않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자신은 래디컬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강훈). 또한 다른 면접 참가자는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이분화하는 고착이 강화될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핍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준호). 이는 개개인을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편견을 가지거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면접 참가자의 답변과도 연결되었다(강훈). 이들과 달리 한 면접 참가자는 남성이 유리한 면이 많다고 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오로지 젠더를 기준으로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동현).

이러한 인식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되었다.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까지 필요하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고(현우), 사회의 요직에 여성들이 많아져야 평등한 사회가 찾아올 거라는 답변도 있었다(강훈). 또한 구조적인 차별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려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현시점에서는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준호). 다만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려하거나(현우), 젠더뿐만 아니라 수행 능력도 함께 봐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동현).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소수자가 되고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 현우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도 이어졌다. 이들의 답변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으로 존재했다. 한 면접 참가자는 인간은 언제까지 평평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없으며 결국 나이가 들면 노약자가 되고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자신도 훗날 차별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 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현우). 또한 차별 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건 자신도 언젠가 소수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으며(강훈), 성소수자 당사자인 면접 참가자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을 향한 혐오 표현을 언급하며 법을 제재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준호).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비판했던 면접 참가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옳은 걸 옳다고 해야 한다며 우호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동현).

### ③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거부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남성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강한 남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면접 참가자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가족들을 때리는 폭력적인 남성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으며(현우), 판타지 웹소설에서 여성이 성 상품화되는 모습을 폭력적으로 인식하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강훈). 또한 다른 면접 참가자는 인

문 서적을 읽으면서 전통적인 남성성이 점점 해체되는 경험을 했다고 답변했다(동현). 이는 해당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거부로 분석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의 특성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및 상상력, 사회연결적인 가치 추구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들은 독서 행위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한다는 점에서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적용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 (2)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 ① 실용 서적 독서를 통한 개인의 성장 및 변화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는 개인의 성장 및 변화를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주로 자기계발서, 경제서, 심리, 주식 책 등 실용 서적 위주로 읽었다. 이들은 현실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현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책을 선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면접 참가자는 과거부터 줄곧 심리학과 자기계발서를 읽었고(상수), 다른 면접 참가자는 과거에는 문학을 읽으며 삶의 철학적인 부분, 인생관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나름의 가치관이 생긴 이후 현재는 자기계발서, 주식 책 등 실용서 위주로 읽고 있었다(대훈). 한편 군대에서는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다가 이후 철학, 신학 위주로 읽기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는 전공 서적을 읽었고, 현재는 주식 책 위주로 읽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명주).

한 면접 참가자는 책을 통해 공부를 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으며, 책에서 읽은 걸 현실에 접목할 때 책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이 올라간다고 답변했고(상수), 다른 면접 참가자는 책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새로운 관점을 열 수 있으며,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고 답변했

다(대훈). 또한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는데(명주), 자신이 읽는 주식 책은 자료와 기술적인 부분 위주라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면접 참가자들의 답변은 주로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책을 통해 자신을 위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으며 내 삶이 맞다는 확신을 제공해 주거나(상수),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책을 읽는다거나(대훈),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점에서(명주), 이들은 책을 개인 성장, 자기계발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때 대훈은 과거에는 책을 통해 정보를 습득했다면 현재는 그 정보를 현실에서 응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책을 읽는 목적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면접 참가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 서적을 읽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독서 행위는 생계 활동과 연관이 있었다.

## ② 젠더 의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적 의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상수, 대훈, 명주). 이들은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했지만, 타인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강요를 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었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큰 이득을 본 게 없는데, 왜 윗세대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나. 근데 왜 또 젊은 남자들 것을 뺏아서 여자들한테 주는가. - 명주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경우, 한 면접 참가자는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이유로 평등하지 않다는 답변했다(대훈). 또한 지금의 청년 남성은 자신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큰 이득을 본 게 없음에도 윗세대

와 같은 잣대를 내밀며 자신들의 권리를 청년 여성들에게 뺏기고 있다고 했다(명주). 또한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주장에 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상수).

이들은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면접 참가자는 기업 대표가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상수).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도 있었고(대훈),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분야에서 신체 기준을 낮게 잡게 되면 앞으로 치안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명주). 이들은 여성할당제를 비판하는 근거로 ‘능력’을 이야기했다. 한 면접 참가자는 누구나 노력을 하면 성취를 할 수 있기에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맞으며, 스스로 못 한다고 판정한 상태에서 혜택을 주거나 신체 능력이 모자란 것을 성별 때문에 감안해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상수). 또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 자격이 미달한 사람들을 여성할당제로 풀어주게 되면 우리 사회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 답변하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명주).

어떻게 보면 혐오할 권리도 자유잖아요. 그들을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본능적인 거부감도 있는 거죠. - 대훈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되었다. 면접 참가자 중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성소수자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다며, 관련 법을 제정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고(상수),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혹은 법으로 위탁하는 경향이 짙어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대훈). 면접 참가자들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자유’

였다. 이들은 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기도 하면서(대훈),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명주). 또한 한 면접 참가자는 어디까지를 혐오라 하고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라 할 건지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한편으론 혐오할 권리도 자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대훈).

### ③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부분적 긍정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남성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도 몇몇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성과 강한 남성성에 대해 긍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면접 참가자는 남자는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주입식으로 많이 배웠다고 했다(상수). 또한 다른 면접 참가자는 전통적인 남성은 가족이라는 배를 항해하는 조타수이자 리더 역할이라며, 어두운 면도 있지만 높이 살 부분도 있다고 했다(대훈). 면접 참가자들은 남성성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안정성, 다재다능함을 예로 들었다(명주). 또한 이들은 통제와 균형을 강조했는데, 남성성의 주요 특성인 공격성과 경쟁 등을 비판하기보다 이를 통제하고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상수). 이러한 태도는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와 유사했는데, 이들은 남성성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하자면,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독서 행위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자유, 공정,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표상된 20-30대 남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 (3) 절충적 남성성

#### ① 직업에 따른 독서 행위 변화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의 독서 행위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였다. 주 독서 장르의 경우, 한 면접 참가자는 과거 NGO에서 일할 때는 문학, 사회과학 등 인문 서적 위주로 읽다가 현재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 마케팅 등 실용 서적 위주로 읽고 있었다(준식). 즉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독서 목적과 장르가 변화한 것이다. 또한 다른 면접 참가자는 과학, 문학, 사회과학 위주의 책을 읽다가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 관련 실용서 위주로 읽고 있었다(현규). 이와 달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곧 심리학, 자기계발 위주로 책을 읽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태호).

경험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식에 대한 경험의 확장, 저의 예술적인 분야에 대한 확장, 삶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 현규

이들의 독서 목적을 살펴보면, 하는 일에 따라 독서 동기가 바뀐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고(준식), 책을 통해 경험 및 지식의 확장, 예술의 확장, 자기 삶의 확장 등을 경험한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현규). 아는 게 많아지며 성취감을 느끼고 공부에 대한 욕심도 생긴다는 답변도 있었는데(태호), 이를 통해 경청하는 자세가 생기고 타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답변은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았는데, 한 면접 참가자는 지적 허영심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과거 NGO에서 일할 때는 공정 무역과 관련한 책을 읽으며 책 주제와 관련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했다(준식). 그러다 현재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기계발서, 마케팅 등 관련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독서

목적이 변화했다. 다른 면접 참가자 역시 지식을 축적한다는 점에서는 개인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연결적인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태호). 이를 통해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에게는 앞서 분석한 두 남성성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젠더 의제에 대한 절충적 인식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다(준식, 현규, 태호). 이들은 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한편 악용 사례를 우려했고,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하며 사안을 쪼개어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했다.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양성이 평등하지 않은 사회라고 인식할 것이라며, 차별은 존재하고 양성이 평등하지 않은 사회라는 답변도 있었고(현규), 페미니즘을 나누어 보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우호적으로 보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준식). 또한 부모님 세대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들을 보며 처음에는 안 좋게 생각했지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은 페미니즘을 존중하려고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태호).

초기에는 한번 물꼬를 터주는 정도에서는 필요한데, 그 이상으로 가면 저는 좀 잘못된 방향이 아닐까. - 준식

이들은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면접 참가자는 한쪽 성이 주류인 곳에서 초반에 물꼬를 터주는 정도로는 필요하지

만 그 이상으로 가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다고 했다(준식). 또한 여성 할당제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조금 가려서 뽑을 필요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보다는 더 절실한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현규). 이들은 초기에 물꼬를 트는 역할로 필요하다는 점과 남녀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는 점에서(준식) 여성할당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면접 참가자의 답변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 남녀를 떠나 절실한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점이나 역차별에 대한 우려, 실용성 등에 우려를 표하는 점에서는(현규) 여성할당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면접 참가자의 답변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법으로 제정하더라도 본능으로는 안 지킬 것 같은데. 내가 싫는데, 나도 나만의 권리가 있는데, 왜 해줘야 해, 이런 게 있어요. - 태호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에 대한 절충적인 태도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다만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 세 명 중 두 명은 절충적인 성향이 강했지만(준식, 현규), 한 명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태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공공의 영역에서는 필요하며, 더 나아가 공공의 영역에서 좀 더 이끌어 줘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준식), 어느 정도 급격하게 진행되며 물꼬를 터야 한다면 서도 차별의 뿌리를 쉽게 뽑을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봤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답변도 있었다(현규). 한 면접 참가자는 자신이 성소수자를 싫어하게 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군대 선임이 샤워를 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배개를 가지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여러 상황을 목격하며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했다(태호). 이처럼 절충적 남성성에 해

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젠더적 의제에 대해 앞서 살펴본 강한 동의 유형과 강한 부정 유형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 ③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복합적 인식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해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남성성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고(준식), 우두머리 수컷을 의미하는 신조어 ‘알파메일’을 이야기하며 몸이 크고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과격한 수컷이 전통적인 남성성에 가깝다는 답변도 있었다(현규). 반면 한 면접 참가자는 자신이 전통적인 남성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태호). 한편 이들은 강한 남성성을 동경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한 면접 참가자는 영화 <범죄도시> 속 주인공처럼 파워풀하게 악당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답변했고(태호), 스스로를 기존의 거친 남성성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모습을 동경한다는 면접 참가자도 있었다(현규).

종합하자면,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독서 행위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을 획득하거나 강화하면서도 어떤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느냐에 따라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처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였다.

## 2) 유형화의 함의

지금까지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의 독서 행위와 남성성의 특성을 정리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향성을 토대로 유형화를 진행했지만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

가자 네 명 중 한 명은 인문 서적 위주로 책을 읽음에도 젠더 문제를 절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동현). 또한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 세 명 중 한 명은 자기계발서 등 실용 서적 위주로 개인 성장 및 변화를 추구하며 독서를 했지만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인식했으며, 젠더 의제에서도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절충적 입장이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태호). 둘째, 같은 장르의 책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읽는지에 따라 독서의 기능 및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 중 한 명은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성소수자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준호), 이를 위해 심리학 관련 서적을 주로 읽었다. 면접 참가자는 자신이 주로 읽는 책을 인문 서적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선입견과 편견을 깨기 위해 책을 읽었다. 반면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 중 한 명은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심리학 서적을 주로 읽었으며, 자신이 주로 읽는 책을 실용 서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대훈). 이는 특정 장르의 책을 읽는 행위가 곧 특정한 유형의 남성성 형성으로 이어진다고보다, 같은 책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읽는지에 따라 개인의 남성성에 다르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여러 지점은 면접 참가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확하게 나누어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면접 참가자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남성성은 현실에서 책을 읽는 20-30대 남성과 일대일로 대응하기보다, 각 유형의 특성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현될 것이라 예상한다. 각 유형은 현실에서 실재하는 남성을 설명하기보다 면접 참가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패턴과 경향을 기반으로 도출한 추상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유형화의 목적은 다양한 남성성 스펙트럼의 몇몇 기준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한편 유형화

는 마치 특정 장르의 책을 읽으면 특정 유형의 남성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서 행위와 남성성이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이 특정 장르의 책을 읽으며 특정 남성성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특정 남성성을 가진 개인이 특정 장르의 책을 읽는 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독서 행위가 기존의 남성성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기존의 남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제를 밝히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본 연구는 그보다는 유형화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남성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남성성이 존재함에도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이 여전히 현실에서 많이 발현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세 가지 남성성 유형 중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모습과 가장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유형은 ‘연결 지향적 남성성’이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우호적인 입장이며, 전통적인 남성성 및 강한 남성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강하게 거부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연결 지향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회과학, 문학 등 인문 서적을 읽었는데, 애초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문 서적을 읽는지, 아니면 인문 서적을 읽으며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선후관계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기존의 남성성을 수정하는 방향이든 혹은 강화하는 방향이든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20-30대 남성을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경제적 인 문제를 주요한 요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동네책방, 도서관 사서 등 책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거나(동현, 현우, 강훈)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준호),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는 이들의 생계 활동 혹은 성적 정체성과 연관이 있었다. 반면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모습과 가장 유사했던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 서적을 읽고 있었으며,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 역시 직업에 따라 독서 행위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함께 생각했을 때, 결국 세 유형 모두 독서 행위가 생계 활동과 연관이 있으며 단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남성성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처럼 책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문 서적을 읽을 동기가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 세 명 중 두 명은 직업적으로 혹은 자신의 활동에 도움이 될 때는 인문 서적을 읽었지만, 직업이 바뀌거나 활동을 그만둔 이후 실용 서적을 주로 읽기 시작했다(준식, 현규). 이는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가 생계 활동과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문 서적을 읽기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실에서 책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20-30대 남성이 인문 서적에 관심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인문 서적 독서는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남성성을 획득하거나 애초에 다른 특성을 보이는 기존의 남성성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특별한 조건과 환경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에 인문 서적을 읽다가도 직업의 변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실용 서적을 읽는 면접 참가자들의 사례를 생각했을 때(준식, 현규), 결국 우리 사회는 20-3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의 특성을 비판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들이 젠더 의제를 우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 6. 결론

본 연구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 함양 등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이미지 이외에 다양한 남성성을 제시하려 했다. 또한 이들 남성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발견되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남성성이 존재함에도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이 왜 여전히 지배적인지 분석하려 했다. 독서는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 함양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개인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양한 목적으로 읽기에,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실제로 개인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30대 남성에 주목했다. 이는 독서 행위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논의가, 반페미니즘 성향, 능력주의, 약자 혐오, 소수자 밀어내기 등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의 특성과 대조적이라는 분석에 기반했다. 본 연구는 20-30대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각종 설문조사와 연구가 주로 젠더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20-30대 남성의 정체성 중에서도 젠더 정체성, 즉 남성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성성은 젠더 의제에 대한 인식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통해 분석했는데, 이때 젠더 의제는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전통적 남성성 및 강한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남성성을 유형화 및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절충적 남성성’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첫 번째,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연결을 목적으로 인문 서적을 읽고 있었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대해 강하게 동의했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성과 강한 남성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는 다른 남성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때 이들은 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현실에 도움이 되는 실용 서적을 읽고 있었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성과 강한 남성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부분적으로 긍정한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세 번째, ‘절충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의 독서 행위는 복합적이었는데, 직업에 따라 독서 행위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의제에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전통적인 남성성과 강한 남성에 대해서 비판과 동경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부분적 긍정과 거부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처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복합적인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가 다문화 감수성, 공감 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는 20-30대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인문 서적을 읽는 경우 독서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실용 서적을 읽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때 20-30대 남성과 독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이 독서를 통해 변화한다는 인과관계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독서 행위의 이러한 특성은 면접 참가자들이 젠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와 연관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연결 지향적 남성성, 개인 성장 지향적 남성성, 절충적 남성성이라는 세 가지 남성성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20-30대 남성과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연결 지향적 남성성'에 해당하는 면접 참가자들은 책과 관련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는 인문 서적을 읽는 행위가 특정 분야의 생계 활동 혹은 성소수자 정체성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20-30대 남성이 인문 서적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우며, 젠더 의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진행되며 면접 참가자의 다채로운 삶의 경험과 변화를 조명할 수 있었지만, 남성성을 유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10명이라는 표본은 부족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하기 위해선 표본을 늘리거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복합연구 방법론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서 장르의 경우 면접 참가자의 답변과 인식을 바탕으로 분류했는데, 인문 서적과 실용 서적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젠더 문제에 비판적인 인문 서적을 읽을 때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면접 참가자들의 계급이 독서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20-30대 남성 내의 다양성을 찾고자 양성평등/페미니즘, 여성할당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으며 전통적 남성성과 강한 남성성에 대한 태도를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는데, 이러한 인식만으로 한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명지. 2020. “청년세대의 새로운 문화적 실천과 구별짓기: 인스타그램 ‘전시 관람’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6): 1867-1882.
- 글래이저·스트라우스. 2011. 『근거이론의 발견』. 이병식·박상욱·김사훈(역). 서울: 학지사.
- 김경민. 2019. “국민과 인간 사이의 인권: 문학적 상상력의 인권 해석.” 『민주주의와 인권』 19(4): 97-124.
- 김미혜. 2022. “다문화 사회의 독서 능력에 대한 재인식.” 『독서연구』 65: 9-40.
- 김세화·최숙기. 2020.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에 나타난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의 의미 구조 분석: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56: 35-63.
- 김수아·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한국여성학』 33(3): 67-107.
- 김수연·구혜경. 2023. “근거이론을 적용한 20대 OTT 복수구독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소비자학연구』 34(5): 87-116.
- 김엘리. 2020.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 36(1): 139-173.
- 김원정·김선아·정윤미·이성준·윤빛나리. 2021. 『청년세대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성평등 정책의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주원·오세이·오경아. 2022. “MZ세대의 과시적여가소비성향별 여가정체성과 여가만족의 차이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6(4): 89-99.
-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 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미혜. 2023. “윤리적 채식주의 소비자의 채식소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 『소비자학연구』 34(5): 157-188.
- 샤마즈.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이상균·박현선·이재원(역). 서울: 학지사.
- 성수진. 2022. “독자반응이론의 반응범주 체계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133: 281-326.
- 안상수·김민순·윤민재·김보연. 2014.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엄기호. 2017. “보편성의 정치와 한국의 남성성.” 권김현영(편).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서울: 교양인.

- 이나영. 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 147-186.
- 전종윤. 2015. “독서공동체,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의 장(場) — 폴 리쾨르 철학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72: 1-22.
- 조성진. 2013. “코칭 연구를 위한 근거이론방법론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코칭능력개발지』 15(3): 247-259.
- 진시원. 2022. “20대 대선의 이대남 현상에 대한 규범이론적 접근.” 『법과사회』 70: 27-64.
- 천경록. 2014. “사회적 독서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101: 7-35.
- 천관율·정한울. 2019. 『20대 남자』. 서울: 시사N북.
- 천정환. 2016.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페미니즘 붐’과 한국 남성성의 위기.” 『역사비평』 116: 353-381.
- 최성용. 2019. “20대 남성 담론을 질문한다.” 『황해문화』 103: 93-113.
- 최숙기. 2018. “페미니즘 텍스트 읽기에 나타난 여성 독자와 남성 독자의 반응 양상 및 읽기 태도에 대한 차이 분석.” 『독서연구』 48: 165-201.
- 최종숙. 2020.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25: 189-224.
- 추지현. 2021. “청년 남성들의 젠더 인식 다층성.” 『한국여성학』 37(4): 155-193.
- 코넬. 2013. 『남성성/들』. 안상욱·현민(역). 서울: 이매진.
- 한귀영. 2021. “20대 남성의 보수화 논의, 그 역사와 함의.” 『정치와 공론』 29: 165-202.
- 한위성. 2017. “독자반응이론에서 본 문학 번역의 의미 구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7: 277-294.
- 한유정·김민지. 2022. “20대 남성의 성평등인식: 지배적 남성성 규범과 능력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30(2): 101-161.
- 허성학. 2020. “20대 남자 현상이 던지는 질문 - 청년세대의 계급적 조건을 담론화하지 못하는 정체성 정치에 대하여.” 『진보평론』 85: 244-275.
- KBS·한국리서치. 2021.6. <2021 세대인식 집중조사>.
- KBS·MBC·SBS. 2021.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 \_\_\_\_\_. 2022. <2022 대선 성별·세대별 출구조사 결과>.

## (2) 국외문헌

- Biernacki, P. 1986. *Pathways from heroin addiction: recovery without treat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Cahill, M. 1996. "Reader-response criticism and the allegorizing reader." *Theological Studies* 57(1): 89-97.
- Chodorow, Nancy J. 2002. "The Enemy Outside: Thoughts on the Psychodynamics of Extreme Violence with Special Attention to Men and Masculinity." Judith Kegan Gardiner(eds). *Masculinity Studies and Feminist Theory: New Directions*.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35-269.
- Connell, R. W. and James W. Messerschmidt. 2005.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 Society* 19(6): 829-859.

### (3)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이혜리 · 유선희. 2022. "'페미니즘 지지에 동의한다'는 2030 남성비율, 단 5.5%." <경향신문>. 2022.7.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7061459011> [검색일: 2024.10.21.]
- 통계청.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
- 통계청.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Abstract

## Diversity of Men in their 20s and 30s and its Implications through the Act of Reading

Park, Jung-Oh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ading behavior of men in their 20s and 30s based on the existing debate that reading is related to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empathy, and aims to present a masculinity other than the socially represented masculinity of men in their 20s and 30s, such as anti-feminism, meritocracy, hatred of the weak, and pushing away of minorities, and to examine why the socially represented masculinity of men in their 20s and 30s is still dominant despite the existence of diverse men. The main object of analysis in this study is the reading behavior and masculinity of men in their 20s and 30s. The reading behavior was analyzed by looking at what books the interviewees read and for what purpose, and masculinity was analyzed through their perceptions of the gender agenda and attitudes towards hegemonic masculinity, where the gender agenda was examined through their perceptions of gender equality/feminism, quotas, and inclusive anti-discrimination laws, and hegemonic masculinity was examined through their perceptions of traditional masculinity and strong men. The study's key findings include First, existing arguments linking reading to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empathy did not apply equally to men in their 20s and 30s, depending on which books they read and for what purpose. Second, the nature of this reading behavior was linked to how interviewees perceived the gender agenda and their attitudes toward hegemonic masculinity. Based on this, we categorized interviewees into 'connection-oriented masculinity', 'personal growth-oriented masculinity', and 'eclectic masculinity'.

Third, for interviewees with ‘connection-oriented masculinity’, which is a contrasting characteristic to that of socially consolidated men in their 20s and 30s, reading humanities books was associated with livelihood activities in a particular field or with LGBTQ identity. This suggests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average man in his 20s and 30s to engage with humanities books, and that it is difficult to create opportunities to perceive the gender agenda in a favorable light.

**Key words:** Masculinity, Reading behavior, Men in their 20s and 30s, Diversity

- 투 고 일 : 2024년 9월 13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10월 4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30일

